



사회인식 개선 위해 노력하자

축하공연 · 유공자 표창 · 장학금 전달식 등 열려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전북도내 13만5,000 장애인들을 위한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열렸다.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는 18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전북도와 국제로터리 3670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이날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이해와 공감지수를 높이고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고 일자리와 문화활동 등에 참여하는 등 권익증진을 도모하며 직업과 사회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행사는 보리, 도도회, 이세은 등 지역가수들과 아퀴난타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식전 축하공연의 막이 올랐다.

아울러, 개회선언과 함께 김양욱 장애인의 날 조직위원장의 장애인 인권 현장낭독,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유공자표창 및 내빈소개, 이군영 국제로터리3670 총재의 장학금 전달식으로 이어졌다.

김양욱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장애인의 날 조직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장애인 복지발전의 요람인 장애인 단체연합회관 건립이 절실하고 사업예산, 단체육성과 인권분야, 장애인 복지는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며, "당사자인 우리 장애인들이 경쟁력을 기르고 화합해 사회인식개선과 장애인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도는 장애인의 재정지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 마련시책과 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의 오후 프로그램은 점심식사와 함께하는 장기자랑에 이어 특별초청 가수 등이 출연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이어져 참석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주최한 김양욱 조직위원장(사진 오른쪽).

